

# 재의 수요일 예배

## Ash Wednesday Service

2026.2.18.

너는  
말이냐..

예배순서 오후7시

### 하나님의 절망

전주

찬송가 143장, Lent Hymn

인도자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창3:9)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는 물음이며 탄식입니다.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저 목소리에는,  
죄로 변해버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절망이 베어있습니다.

찬송가145장, Lent Hymn

여는기도

인도자.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다같이. 하나님, 내 삶은 어디에 서 있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인도자.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귀를 밝혀주십시오.

다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들려온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는찬송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가락에 맞추어 부릅니다.



1.아 답아 네가 어 디있느 냐 불 순 종 의 열 매 가 보 이 는 가 수  
2.아 답아 네가 어 디있느 냐 온 세 상 신 음 소 리 들 리 는 가 네  
3.아 답아 네가 어 디있느 냐 다 가 온 심 판 이 너 보 이 는 가 소  
4.아 답아 네가 어 디있느 냐 저 구 원 의 외 침 너 들 리 는 가 이



치 심 에 떨 며 어 둠 에 숨 어 부 르 시 는 음 성 외 면 하 는 구 나  
욕 심 을 따 라 만 족 한 만 큼 주 님 의 피 조 물 아 파 하 는 구 나  
망 의 약 속 은 변 치 않 으 니 구 원 의 주 앞 에 너 나 아 오 라  
죄 로 혼 탁 한 세 상 가 운 데 소 망 의 소 리 에 너 응 답 하 라

말씀봉독

인도자. 다같이. 창세기 3장 1-7절

인도자.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다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도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다같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도자.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무리 Lent Hymn

말씀

이성실. 변형

사람은 본디 무엇이었습니다?  
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 눈길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 관계에는 어떤 변형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람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찬송

다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F C F GmD GmF F7 B♭F C

1. 주 달려 죽은 - 십 자 - 가 우리가 생 각 - 할 때 - 에  
2. 죽 으신 구 주 - 밖 에 - 는 자 랑을 말 게 - 하 소 - 서  
3. 못 박힌 손 발 - 보 오 - 니 큰 자 비 나 타 - 내 션 - 네  
4. 온 세 상 만 물 - 가 저 - 도 주 은혜 못 다 - 갚 겠 - 네

F C F GmD GmF C Dm GmC7

세 상에 속 한 - 욕 심 - 을 헛 된 줄 알 고 버 리 - 네  
보 혈의 공 로 - 힘 입 - 어 교 만 한 맘 을 버 리 - 네  
가 시로 만 든 - 면 류 - 관 우 리를 위 해 쓰 션 - 네  
놀 라운 사 랑 - 받 은 - 나 몸 으 로 제 물 삼 겠 - 네

헤아림

이시간 내 존재와 삶에 변형을 일으킨 죄를 돌아봅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들,  
스스로 신이되어 밝은 눈과 지식으로 세상과 사람을 정죄했던 순간들을  
성령의 도움 안에 헤아려 봅시다.

찬송가 147장 Lent Hymn

재를 위한 기도 인도자

재뿌림

자신의 이마에 재를 바르며 고백합니다.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를 향해 선언된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찬송가150장, Lent Hymn

고백의 기도

인도자.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도자. 거룩하신 하나님, 더불어 자비하신 하나님

**다같이. 우리가 당신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했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헤아리고**

**죄로 인해 무심하고 이기에 빠졌던 순간을 소환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섬기라는 당신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재한 우리 삶은,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았고, 자존심, 질투, 위선, 무관심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는 식탐에 빠져있었고, 탐욕을 위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태만했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고난에 소홀했고 불의와 잔인함에 무심했습니다.

**다같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자. 주님 당신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소생케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보내는 말씀

인도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시작된 사순의 부름을 따라,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같이.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축도

인도자.

후주

찬송가 150장 Lent Hymn